고려 중엽 한문 산문의 문제

金血神

목차
1. 문제 제기
2. 고려 중엽 고문의 가능성
3. 임춘 산문의 몇 가지 실제
4.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한문학의 산문사에서 古文은 益啓 祖峙賢에 의해 儀節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우리 산문사에서 고문 창도를 고려 말 익계의 시기로 잡는 것은 중국에 비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뒤떨어진다. 중국의 고문 창도를 당나라 봉건의 시기로 잡는다고 한다면, 고려의 고문은 무려 5세기나 뒤떨어지게 되고, 송나라로 잡는다고 해도 3세기기가 뒤떨어진다. 고려 시대에 宋나라 문화를 즉시 받아들였던 시대 사정을 고려하면, 유독 고문 창도만 시기적으로 뒤로 잡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문학사를 지니지게 후한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고려 중엽의 고문 창도의 가능성을 따져보았 다. 고려 중엽에 고문이 창도를 만한 입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았고, 구체적

* 이 논문은 영남대학교 2007년 하반기 연구논문 연구비로 작성되었음.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hyulp@ynu.ac.kr
으로 西河 林椿의 산문이 고문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
려 중업에 이미 고문이 출현하였으며, 임춘의 많은 작품은 고문 문체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임춘의 고문은 중국 당나라 한유의 고문과 같은 문학사
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체적 측면
에 한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문의 개념, 즉 歷史의 개념으로
서의 고문 문체라고 할 수는 없음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결국 문학사에서 고문을 언급할 때는 그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고문 장도는 고려 말 익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고, 다만 문체적인 면에서의 고문은 이미 고려 중업에 이루어졌다. 이것
이 본교의 결론이다.

주제어 : 古文, 騎儉文, 李齊賢, 林椿, 金澤榮, 僑儒, 唐宋古文, 文體, 毛穎傳, 魯醇傳,
高麗 中葉

1. 문제 제기

한국한문학의 산문 문체를 논의할 때 누구나 가 금과옥조로 인용하는 고
건적 인용문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문 장도와 관련할 때 반드시 인용
하는 글이다. 창강 김태영의 발언이 그것이다. 창강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대미를 장식했던 고문의 대가로서, 그 자신은 중국 漢나라 蘆城坡의 논리
를 받아들여 엄정한 고문관을 새웠던 인물이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
고 우리나라의 고문을 대표할 만한 아홉 명의 고문관을 엽성하여 『麗藻九
家文』이란 책을 편집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문은 삼국과 고려시대에는 오로지 석권의 문장을 배워 벼락문에
된어났다. 고려 중기에 文烈公 金時敏이 특히 결론하였는데, 그가 편집한『三國史